

포천사회 知識人 ㉞

대진대학교 신 강 호 교수

“初心 잃지 않는 헝그리 精神이 요구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지원사업 신청 학교 늘어나야

2006년 KBI-KBS SKY 대학생 영상 페스티벌에서 작품 총 231편중에서 대진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출신의 천주영씨의 작품 'Everyday Good Morning'이 최우수상인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2006년 제5회 미장선 단편영화제에서 작품 총 725편중에서 대진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출신의 정태경씨의 작품 '2분 2Minutes'이 액션·스릴러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2006년 제8회 막돌이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대진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출신의 김정훈 학생의 작품 '달팽이'가 작품 총 588편중에서 당선돼 1천만원의 상금을 받기도 했다.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악, 영화, 연극, 무용, 애니메이션 등의 과목을 신청만 하면 개설할 수 있고 강사를 파견하고 일부 시설도 지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화를 통한 인성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는 신 교수는 학생들에게 영화감상의 기초는 물론 영화제작까지 교육이 가능하다고 한다.

신 교수는 충남 대전 출생으로 기암초등학교, 대전북중학교, 대신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영화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신 교수는 또 영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한다. 현재 대진대학교 총학생회가 임기말이며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정기적으로 영화감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영화감상의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

최근 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상단지에 대해 신 교수는 뜻은 좋는데 그런 일은 마음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다.

대진대학교 ROTC 공식출범식에 다녀왔다는 신 교수는 대신고등학교 재학생 시절 연대장으로 활동했던 기억이 난다고 한다.

신 교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강사지원사업에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여 운영해야 가능한 사업이다. 경기도가 일산에 추진하고 있는 한류우드 사업은 경기도 영상위원회가 1조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것과는 크게 비교된다고 볼 수 있다.

신 교수는 학생들에게 '헝그리 정신'을 강조한다. 영화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투자해야 성과가 나타난다. 그 시기를 버티기가 쉽지 않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헝그리 정신이 요구된다.

신 교수는 2007년9월에 한국영화학회장으로 취임한다. 2년 전에 자기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그동안 연공서열로 학회장을 선출했으나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최초의 학회장이 된다.

신 교수는 2007년도에 대진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설립 10주년이 된다. 연극영화계, 졸업생과 함께 하는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 체육관을 활용해 에어스크린을 설치하고 영화상영도 실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신 교수는 문화관광부 국어순화위원회 연극영화 용어사전 집필위원, 중앙일보사 연극영화학과 평가 자문위원, 고등학교 영화 교과목 편찬위원회 위원, 영화진흥위원회 학술지원 사업 심사위원, 국립중앙박물관 영상패널 제작 평가위원, 중학교 영화교과서 집필위원,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 심사위원, 수도권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영화학회, 한국영화교육학회, 한국영화사학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영상기술학회, 국제영화비평가연맹(FIPRESCI)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 교수의 주요논문과 주요 저서는 다음과 같다.

- ▶영화 시나리오 연구(석사학위논문)▶신형식주의 영화이론에 대한 일고찰(박사학위논문)▶할리우드 스튜디오 시대의 황금기▶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스타일 분석▶존 포드의 영화미학▶명장면으로 영화읽기(커뮤니케이션북스, 2005)▶영화작가연구(도서출판 원일, 2006)▶영화란 무엇인가(공역, 거름,1998)▶한국영화감독사전(공저, 국학지원, 2004)▶만주, 이만희(공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한국영화사(공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내년부터 지역住民과 學生들을 위한 映畵상영 계획

프로 한탄강댐 건설예정지

水公, “포천시 협조없으면 댐 건설 불가능”

포천시의회 한탄강댐 대책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지난 11월1일 오전 11시40분경 포천시의회 3층 회의실, 시의원들은 한탄강댐 건설을 다목적용으로 건설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에 이병욱 시의원을 선임하고 간사에는 이종호 시의원을 선임했다. 시의원들은 특위 구성은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한탄강홍수조절용댐 건설계획에 대한 포천시민의 전반적인 정서를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다목적용댐을 관찰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진방안으로 한탄강댐 대책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해 지역문제도 이슈화, 정부의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건설계획의 불합리성 집중홍보,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서명운동 병행 추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위 운영기간은 지난 10월3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간으로 결정하고 회의를 종결하고 오후엔 한탄강댐 건설예정지인 다라대 사격장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방문에는 한탄강댐 건설문제가 포천지역 이슈로 떠오르면서 시의원 8명 전원과 시의회 직원, 시청직원, 기자 6명 등이 함께 댐 건설예정 현장으로 향했다.

현장 입구에서 들어서자, 포천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천혜의 비경이 펼쳐진다. 이곳은 군 주둔지이기 때문에 검문소를 통과해 현장에 이르렀다. 현장에는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한탄강댐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방문자들을 상대로 건설되는 댐 규모, 지형현황 등을 설명하고 시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순으로 진행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북한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할 경우 임진강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댐 건설을 계획했다”면서 “처음에는 한탄강댐과 영평천 2곳을 다목적용 댐을 건설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2곳의 댐 건설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영평천 댐 건설이 현실에 맞지 않아 한탄강댐을 확대하게 됐다”며 “이 과정은 2003년7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홍수조절용이라는 점은 포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탄강은 50m의 절벽으로 이루어져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처음부터 홍수조절용으로 건설하고 있다”면서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포천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천시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수물지역 활용방안으로 포천시와 공동 용역을 실시하고 포천시 도시계획에 포함시켜 꽃농원 조성 등을 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탄

강댐 건설을 정부기준에 따라 설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지만, 다만 천변지류 규모는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질문시간에 “댐 건설시기는 올해 기본계획 고시와 설계를 병행추진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탄강댐 건설 추진은 그동안 포천시청과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또 “한탄강댐 건설은 계획 단계인 9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과정 등을 포천시와 협의해 왔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 갈 것”이라면서 “철원주민들이 반대하고 포천, 연천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찬성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포천시청은 물론 농림,건설,축산등 관련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시 대부분 반영했다”고 지적하고 “한탄강댐은 홍수조절용으로 발표한 정부입장은 변경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탄강댐 활용에 수변공간조성이나 농업용과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일부 변경은 가능하다”면서 “포천시에 대해 2~30년 후까지 팔당 호 용수를 필요한 만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 동행한 포천시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산하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로 넘어가기 이전까지는 수자원공사측과 협의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후 총리실 산하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에서는 경기도와 강원도, 주민 등만 협의했을 뿐 포천시는 끼워주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와 포천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한탄강댐 건설추진 과정을 수자원공사는 포천시 등과 충분히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포천시는 한탄강댐이 홍수조절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렇다할 만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채 댐 건설에 협조해 왔다. 그나마 총리실 산하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로 한탄강댐 건설문제가 이관되었고, 지속가능위원회는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확정발표하게 된다.

수자원공사의 한탄강댐 건설계획, 추진과정 등을 훤히 알면서 포천시는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수변공간조성사업, 천변저류지 건설 등에 너무 매여서 큰 흐름을 잃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한탄강댐 수몰예정지역 70%를 차지하고 있는 포천시는 댐 건설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등한시 해 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포천시 관계자들은 댐 건설이나 혹은 도로망 개설 등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단일한 행정이 포천시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실감과 좌절감을 주는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하승만 기자 forme65@paran.com



풍산 그라비아 POONGSAN GRAUVRE 포장지 제조라인을 모두 갖춘 전문회사

생명력을 가진 식품 포장재 생산!!!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포장재를 생산합니다.

생 산 품 목
지퍼백, 진공포장지, 제과봉투류
커피봉투류, 각종 호일팩류
애견 식품 및 용품포장류
뉴시용품 포장지류

가 공 제 품
스탠딩삼방, M자가공,
스탠딩지퍼, T자가공, 지퍼삼방
기타 다양한 가공, 생산설비보유

용 도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가공식품, 조식식품
기타 각종비닐포장지류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600-4 / 전 화 : (031) 536-3531 / 팩 스 : (031) 536-3530 / H·P : 011-279-4002 / 대 표 : 최 정 택